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완만한 인플레이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 Bloomberg: 6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핵심 내용은?
- Bloomberg: 파월 의장, “물가가 2% 목표로 크게 하락한다는 확신 아직 없어”

[미국 금융]

- Bloomberg: 물가 둔화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국채 금리 하락
- Bloomberg: 금값 2천4백불 돌파...물가 둔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부동산]

- Bloomberg: 뉴욕시 아파트 임대 시장 뜨겁다
- WSJ: 주 정부 규제 당국, 주택 보험사 보험료 인상 요구 허용

[원유]

- WSJ: IEA, 내년 석유 수요 낮추고 공급은 상향 조정

[전기차]

- CNN Business: 바이든, EV 시설에 17억 달러 지원 발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코스트코, 7년 만에 멤버십 수수료 인상한다
- WSJ: 델타 항공의 전망 부진... 여름철 가격 경쟁 가열 상황 시사
- WSJ: 펩시코, 수년간 가격 올렸는데... 이제는 소비 감소 우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Milder Inflation Keeps Door Open to September Rate Cut **미 완만한 인플레이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 6월 미 인플레이가 크게 둔화되어 물가 상승세가 최근에 계속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상품과 서비스 가격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월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3%로 떨어져 작년 6월 이래 가장 낮았다.
- 식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지난달 이래 단지 0.1% 만 상승했는데 이는 여전히 경제가 팬데믹에 영향을 받았던 2021년 1월 이래 가장 소폭 상승했다. 핵심 물가지수는 물가 수준을 보다 잘 측정하는 지표

로 알려져 있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작년과 비교해 3.3% 상승해 지난 2021년 이래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WSJ 기사

Bloomberg: Here Are the Key Takeaways From the US CPI Report for June

6월 소비자물가지수의 핵심 내용은?

- 핵심 물가 지수는 5월 대비 0.1%만 상승했으며, 헤드라인 CPI는 6월에 0.1% 하락함.
- 연간 단위로 핵심 CPI는 3.3% 상승해 예상보다 낮았으며, 이는 지난 2021년 4월(인플레이션 급등하기 시작한 시기) 이후 최저 폭으로 상승한 것.
-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으며 금리 선물은 9월 인하에 가격을 거의 반영함. 올해 말까지 적어도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신호.
- 거주 비용이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작은 폭으로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항공료와 중고차 가격이 줄어든 반면에 자동차 보험료는 계속 상승함.

Bloomberg 기사

Bloomberg: Powell Not Prepared Yet to Say He's Confident About Inflation

파월 의장, “물가가 2% 목표로 크게 하락한다는 확신 아직 없어”

- 파월 의장은 어제 하원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연준의 2% 목표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 즉, 물가 하락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지만 2%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는 화요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완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양호한 지표들’이 물가가 2%로 회복될 것이라는 연준의 확신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동시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연준 관리들은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하는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Yields Sink as CPI Puts September Fed-Cut in Play: Markets Wrap**물가 둔화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국채 금리 하락**

- 인플레이 둔화 지표로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시장은 랠리를 보이고 있다.
- 10년물 국채 금리는 10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19%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시장은 2백20억달러 규모의 30년 매물을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증시는 올해 가장 길었던 S&P 500의 랠리로 과매수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실망스러운 회사 실적 보고가 주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 Rallies as Drop in Inflation Bolsters Rate Cut Optimism**금값 2천4백불 돌파...물가 둔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 금값이 온스당 2천4백불을 돌파해 5월의 최고가에 근접한 상태다. 오늘 목요일 발표된 미 물가 둔화 지표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 금값은 1.8% 상승해 온스당 2천4백50달러 7센트의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 비금리 자산인 금은 일반적으로 고금리에 역풍을 맞는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중앙은행들의 매수 물결에 따라 올해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Bloomberg: Manhattan Renter Bidding Wars Hit Record High in Heated Market**뉴욕시 아파트 임대 시장 뜨겁다**

- 뉴욕시 아파트 시장이 뜨거운 경쟁을 보이고 있다. 관련 브로커 업체인 Douglas Elliman Real Estate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 경쟁 끝에 최고치인 24%의 임대 계약 체결되었다. 이 회사는 팬데믹 제재 해제 후에 임대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 2021년부터 관련 집계를 시작했다.

- 또한 아파트 임대 희망자들이 6월에 큰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물이 나온 뒤 평균 24일 만에 계약이 성사되고 사상 가장 짧은 매물 기간을 보였다. 또한 임대하는 이는 평균 1.4%라는 사상 최고치의 프리미엄을 매물 공시 가격보다 더 지불했다.
- 한편 맨해튼 임대료는 현재 비교적 안정적이다. 새로운 임대 계약에 따르면 지난 달 중간 월 임대료는 4천3백불로 작년과 비슷했고 5월보다는 50불 올랐다.

Bloomberg 기사

WSJ: Home Insurance Premiums Are Surging—and States Are Allowing It 주 정부 규제 당국, 주택 보험사 보험료 인상 요구 허용

- 미국의 주택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여 소비자의 보호 권리가 약해지고 있다.
- 미국 전역의 주 규제 당국은 보험사들이 서비스 지역을 떠나 주민들의 보험 상품 선택권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업계의 요구에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 지난 12개월 동안 어떤 주의 경우 규제 당국이 더 이상 보험료 인상 요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결정했고, 다른 주에서는 보험사가 날씨 폭풍 보험 서비스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다른 주는 회사가 보험료를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비용 형태를 늘리는 데 동의했다.
- 월스트리트(WSJ)의 분석에 따르면, 주들은 주택 보험사들이 보험료에 대해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분석 결과, 작년 초부터 주에서 승인한 평균 보험료 인상율은 업계가 요청한 인상률보다 단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SJ 기사

[원유]

WSJ: IEA Cuts 2025 Oil Demand Forecast, Lifts Supply View IEA, 내년 석유 수요 낮추고 공급은 상향 조정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석유 수요 증가 예상치를 낮추고 공급 예상치를 높였다.
- IEA는 내년 석유 수요 증가 예상치를 이전에 예상했던 100만 배럴에서 98만 배럴로 낮췄다. 이에 따라 내년 총 석유 수요는 하루 평균 1억40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경제 성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OECD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도입하고 전기차를 출시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WSJ 기사

[전기차]

CNN Business: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a \$1.7 billion plan to juice electric vehicles in America
바이든, EV 시설에 17억 달러 지원 발표

- 백악관은 목요일에 폐쇄된 자동차 제조 및 조립 현장을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데 17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 지원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했으나, 올해 초 신규 전기차 판매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 제니퍼 그랜홀름(Jennifer Granholm)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수년간의 역외 유출 이후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재유치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Costco to Lift Membership Fees for First Time in Seven Years
코스트코, 7년 만에 멤버십 수수료 인상한다

- 코스트코(Costco)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한다. 이는 게리 밀러칩(Gary Millerchip)이 재무 책임자로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 이 도매업체는 수요일에 골드스타 멤버십 및 비즈니스 멤버십의 연간 회비가 기존 60달러에서 65달러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가격은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리워드 캡은 1,000달러에서 1,25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 현재 882개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약 5,200만 개의 회원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트코는 과거 5년마다 가격을 인상해 왔으며, 가장 최근의 가격 인상은 3,500만 명의 회원에게 영향을 미쳤다.

WSJ 기사

WSJ: Delta's Disappointing Outlook Sends Warning on Summer Travel 델타 항공의 전망 부진... 여름철 가격 경쟁 가열 상황 시사

- 델타 항공은 미국 항공사들이 여름 여행 성수기에 좌석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티켓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에 부담을 주는 요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델타 항공은 목요일에 예상보다 부진한 재무 실적과 약화된 전망을 발표했다.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1.70~2달러로, 이는 블룸버그 집계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치인 주당 2.04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매출 증가율도 5.3% 예상치보다 낮은 4% 미만으로 예상된다.
- 이번 전망은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추가 공급된 좌석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항공사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낮은 요금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델타의 최고 경영자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은 인터뷰에서 “과잉 공급으로 인해 큰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모든 항공사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월부터 8월까지 티켓 가격 인하가 특히 심각하다고 덧붙이며, 업계의 좌석 공급이 수요를 3~4% 초과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WSJ 기사

WSJ: PepsiCo, After Years of Price Hikes, Sounds an Alarm on Consumer Spending 펩시코, 수년간 가격 올렸는데... 이제는 소비 감소 우려

- 지난 몇 년간 물가가 치솟으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레스토랑, 콘서트, 여행과 같은 고가의 지출 대신 도리토스, 레이즈와 같은 저렴한 간식을 계속 구매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펩시코(PepsiCo) 최고 재무 책임자인 제이미 컬필드(Jamie Caulfield)가 말했다.
- 펩시코는 프리토레이(Frito-Lay) 북미 사업부의 매출이 4% 감소했다고 밝혔다. 컬필드는 “가격에 더욱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비용 대비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스낵 및 음료 대기업인 펩시코는 6월 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1% 증가했지만 판매량은 2%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북미 음료 사업부의 판매량도 3% 감소했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특히 식료품비에서 수년간 지속된 가파른 가격 인상으로 인해 누적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달간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브랜드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WSJ 기사

美 시장금리 '잠잠'하지만..."파월, 발언으로 방향 전환 시작"

"노동시장은 인플레이 압력 원천 아냐" 입장 변화...금리인하 기반 다지기
'인플레이 2% 도달 전이라도 인하 가능' 시사...6월 CPI 주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번주 의회 발언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시중 금리가 잠잠한 모습이지만,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피벗)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9~10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채권 투자자들은 이번 달 들어 국채 금리 하락(가격 상승)에 지속적으로 베풀어왔고,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이달 초 4.49%를 찍은 뒤 하락세를 기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